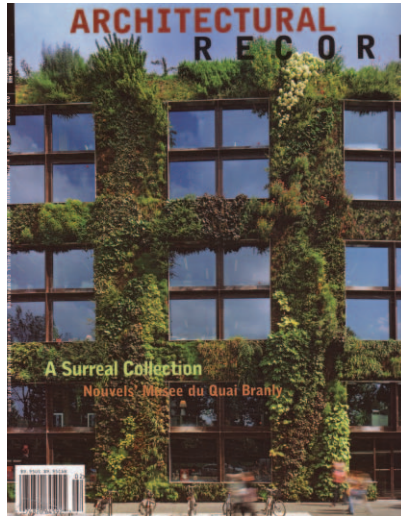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cord 2007년 2월호에서는 장 누벨의 Quai Branly 박물관과 데이빗 취퍼필드의 Modern Literature 박물관, 자하 하디드의 근작이 소개되고 있다. 무언가를 담고 그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박물관과 쇼핑센터는 비슷한 면이 있다. 빌딩 유형 연구에서는 문화적 아이콘으로서 20세기 동안 많은 정체성을 축적해온 쇼핑센터를 쇼핑을 하는 구매자의 특성들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소개하고 있다.

■ 시간서적 리뷰

이번호는 일본의 현대건축의 최근 경향을 다루는 서적들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아라타 이소자키 본인이 쓴 서적이 번역되어 일본인의 시선으로 본 일본 건축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Japan-ness in Architecture , by Arata Isozaki. Sabu Kohso 역. Cambridge. MIT Press, 2006
- Kazuyo Sejima + Ryue Nishizawa : SANAA, by Yuko Hasegawa New York : Phaidon, 2006
- Kengo Kuma : Selected Works, by Botond Bogner,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6
- FOBA : Buildings, by Katsu Mmabayashi, Thomas Daniell, Michael Webb.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5

■ 작품리뷰

20세기의 첫 십년에 마르셀 뒤샹이 일상 사물을 예술의 영역에 올려놓았을 때, 소박하고 소중한 예술의 세계는 여기저기 균열이 가고 있었다. 더 이상 박물관은 순수한 미학의 집성이 아니었다. 풍자로 덧칠된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불경스런 사람들을 사회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오늘날 예술과 공예, 산업의 경계는 더욱더 혼미하다. 디자인이 유일하게 그들 사이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1932년 뉴욕 MoMa에 건축과 디자인 분과가 정식으로 설립되면서 프라다 매장의 상품 디스플레이와 박물관의 전시공간 사이의 연대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Museum Quai Branly , Paris(by Jean Nou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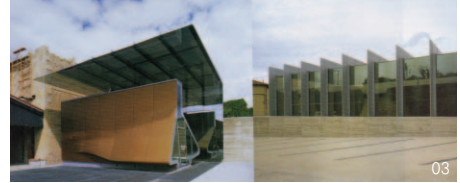
세느강의 곡선을 따라 장 누벨은 대담하고 다채로운 요소들의 놀라운 앙상블을 올려 세웠다. 길거리에 면한 박물관의 북측 파사드는 150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야생동물의 이미지를 통해 비유럽 사회에 대한 유럽인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내부에 있는 수평적은 일련의 구조체 들은 오스망 시절의 아파트 건물 군에서 솟아올라 박물관 전체를 지지하고 있다. 700 피트의 긴 전시 빌딩은 측면에 여러 가지의 토양의 색채를 연상하게 하는 합성수지 캔틸레버 박스는 소규모의 전시공간으로 전시의 다양한 층위를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은 부적절할 정도로 다양한 파사드를 가지고 있다. 고정된 직교 루버, 조작 가능한 루버, 전술한 돌출된 박스, 연체동물을 닮은 차양의 작동방식은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방식이다. 북측면의 정원은 질 클레망이 디자인 것으로 떡갈나무와 벚나무, 목련 등의 나무가 심어져 있다. 남측의 정원은 키 큰 풀과 작은 연못으로 되어있다. 넓고 빛이 제한된 전시공간은 건축사가 “강”이라고 부르는 지역을 빙 둘러 구성되고 있다. 이 구불구불한 순환의 중추는 조각적이고 가족으로 뒀인 파티션으로 구분되는데, 이 파티션은 의자와 인터랙티브한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장치이다. 암적색과 인디고, 황토색, 쪽빛의 색깔은 대지의 색깔을 은유하는 동시에 미국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전시 시설의 구분을 위해 사용되었다. 비록 기존의



01



02



03

01\_ Jean Nouvel - Quai Branly Museum  
02\_ David Chipperfield - Modern Literature Museum  
03\_ Zaha Hadid - Wineshop and Tasting Room

박물관에서 드러나는 노골적인 인포메이션의 제시와 학습의 과정은 보이지 않더라도, 선입견을 잠시 물리다면 장 누벨의 선사미술 박물관은 다채롭지만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Modern Literature Museum, marbach, Germany (by David Chipperfield)

이 건축물에서 건축사 데이빗 칩퍼필드는 모더니즘과 고전주의를 명료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결합시키고 있다. Modern Literature Museum은 사이트 주변에 있는 네카 강을 굽어보는 고원위에-이전에 있던 네오 바로크 양식의 국립 쉐러 박물관 옆에- 자리 잡고 있다. 남서 측 테라스에서 보면 박물관은 한층 높여처럼 보이지만 동측면으로 오게 되면 테라스가 실제로는 하부 건물의 옥상부였음을 알게 된다. 이 건물이 이런 고전적인 형태를 띠게 된 것에는 대지에 1903년 작 쉐러 박물관을 비롯하여 1973년에 건축된 독일 문학 아카이브와 같이 시간차를 가지고 건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Modern Literature Museum에서 PC 콘크리트는 상층부의 기둥에서 매끈한 물성에서 개념적인 준위의 의미를 가지면서 테라스를 향해 열려있는 로지아를 연출해 내고 있다. 모래로 간 PC 콘크리트 기둥과 포디움에서 사용되는 수평 슬래브들은 부드러운 백색 조로 한 덩어리로 결합되어 있다. 하층으로부터 접근한 방문자는 저층의 갤러리가 2개 층에 걸친 콘크리트 아트리움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쉽게 지각할 수 있다. 콘크리트에 의해 적당히 걸러진 외부광선은 하부층 포이어를 비추게 된다. 하부층의 전시관은 고서적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50룩스 이하의 빛으로 콘트롤되고 있다. 상설 전시실에서 빛에 대한 사항은 전시대와 조명에서 다시 한번 고려되고 있다. 전시대는 반사도가 낮은 유리와 철을 사용하고 있으며 LED 조명으로 서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이 무덤같은 장소는 아니다. 이를 위해 건축사는 갤러리의 천장 높이를 자연광이 들어오는 장소 바로 옆에서 조절하여 바닥에도 자연광이 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멀리언과 기둥의 반복적인

리듬은 마치 긴 터널의 램프의 반복처럼 실 제감과 모한 거리를 가지는 감성을 가지고 있다. 이전작 Figge Museum과 같은 방식으로 건축사는 지역적 전통을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이 건물의 경우 역사와 전통, 개성과 디자인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매우 적절하게 고유의 영역을 지켜내고 있다.

- Wineshop and Tasting Room, Lopez de Heredia Winery, Spain (by Zaha Hadid)

최근 정력적인 행보로 많은 건축사들 사이에서 화자되고 있는 자하 하디드가 이번에는 캐노피로 덮여 있는 보석같은 파빌리온을 만들어 냈다. 마치 와인병이 흘러내린 듯한 형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와인샵은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터-합성수지 쉘로 되어 있으며 상부의 캐노피는 유리와 철로 되어 있다. 캐노피는 웅벽과 주차공간을 등지고 마을같은 구조를 가진 와인 양조장을 향해 열려있다. 와인 시음을 위한 공간에서 방문객은 기울어진 정문을 통해 들어와 강으로된

골조를 가진 벽으로 된 상자위에 있는 긴 선반 위 혹은 그것에 인접해 있는 하얀 베르너 팬톤의 의자에 앉게 된다. 시음공간 하부에는 기능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며 외부 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파빌리온 안쪽에는 대단히 이질적이면서 고전적인 건축이 별도로 내장되어 시음공간의 끝을 화려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것의 실체는 1910년에 브뤼셀에서의 축제를 위해 마호가니와 오크로 제작된 와인 디스플레이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아르누보의 흐드러진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 ■ 건물 유형 연구

우리는 항상 우리가 쇼핑을 하는 장소에 있다. 우리가 인정하던 그렇지 않은 우리가 쇼핑을 하는 장소는 우리의 수입과 나이, 거주장소, 라이프스타일, 개인적 취향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에 리치몬드 연예소동이나 새벽의 저주와 같이 로맨틱 코미디와 공포영화를 넘나들며 쇼핑센터는 우리의 정서적 지형도를 반영하고 있다. 1916년에 시작해 이제는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Market Square나 캔자스 시티에 Country Club 쇼핑 지역(1922년 개장)은 J.C 니콜스에 이르러 자동차에 초점을 맞춘 진정한 “쇼핑센터”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실상 20세기의 발전의 경로와 변화의 과정을 표현하기에 쇼핑센터는 더할나위 없이 편리한 대상이다. 교외로 나가서 사이즈를 키우고, 아울렛이 들어서고, 다시 도심부에 쇼핑센터 설립으로 공동화를 막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선도하고 예견하고 재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맨체스터에 자리하는 Triangle Shopping Center에서 영국과 홍콩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사 Benoy는 테러에 의해 파괴된 20세기 초의 곡물 교환을 위한 빌딩을 근대전 쇼핑센터로 탈바꿈시키면서 파급력을 주변으로 전파하고 있다. Mel Chantrey가 만든 조각들이 북쪽으로 난 새로운 출구로 유도를 하고, 세 개의 다리위에 떠있는 스카이 바는 이 센터의 아이콘으로 인식된다. 건축사는 기존에 있던 볼트와 돔을 제거하고 스테인레스 강과 유리 와 같은 새로운 재질을 입혀 역

사적 장소를 활기찬 쇼핑의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스카이 바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야간에 쇼핑센터 안에서 재조립되었다. 커피숍이 안에 있다.

(글/김훈/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선문대학교, 부천대학 출강)

## 新建築



이번 호(3월호)에서는 규모가 큰 작품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소주택과 상점, 클리닉 등 소규모 건축과 인테리어에 집중된 작품소개가 이루어졌다. 니시자와 류에의 House A는 실내를 마치 외부의 정원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한 작품으로 독특한 개방감과 공간감으로 표지를 장식했다.

### ■ House A

• 설계 : 니시자와 류에 건축설계사무소  
정원과 같은 집 - HOUSE A는 오래된 목조주택이 밀집하는 주택지에 세워진 독신자를 위한 주택이다. 건축주가 요구한 것은 파티를 열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을 어딘가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게스트가 숙박할 수 있는 침실과 식당 겸 주방, 욕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부지는 남북방향으로 긴 형상을 하고 있고, 동서의 인접 대지쪽으로는 아주 가까운 곳에 목조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어느 정도 건물들이 밀집된 곳이었다. 건축사는 주거환경으로서는 조금 어두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건축사 니시자와는 층고가 높은 몇 개의 방을 일렬로 늘어놓은 후 약간씩 비껴 배열해 전체적으로 밝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전체구성은 도로측부터 게스트하우스, 현관 포이어, 선룸+세탁실, 다이닝키친, 드레싱룸(2층 부분에 침실)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이 모든 실들이 좌우로 조금씩 비껴 가면서 부지형상을 따라 일렬로 늘어선 있다. 이 방들은 모두 높은 천정과고를 지니고 있어 실내에 들어서면 방안에 가구나 화분들이 놓인 것이 아니라 마치 야외 정원에 놓여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단층 구조이면서도 철골조를 사용한 것은 극도로 세장하고 가벼운 구조체를 통해 이와 같은 개방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알루미늄패널로 마감된 소박한 외관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밝고 개방적인 공간감은 이 작은 주택을 신건축 작품소개의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게 만들었다.

### ■ 노노야마 교정 치과 의원

#### • 설계 : 산부이찌 건축사사무소

이 건물은 자연에너지의 활용, 도시적 환경에의 적응, 그리고 새로운 치과병원으로서의 존재감 표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사이에서 균형잡힌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부지의 동쪽과 남쪽이 간선도로의 교차로 모퉁이에 면하고 있어 연중 태양광의 영향을 받으며, 도로의 분진과 배기가스 소음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대지의 위치는 건물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위치라는 장점도 있지만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었다. 해답은 건물의 표피 디자인에서 찾아졌다.



인에서 찾아졌다. 건물 표면에서 내부 공간에 이르기까지에는 총 4개의 켜를 마련하였다. 가장 최 외곽의 표피는 열전도율이 낮은 목재 루버로 만들어져 태양광과 시선, 우수등을 막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 안쪽에는 마련된 작은 폭의 공간에는 토양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여기에 식재를 심어 열환경조절기능을 갖도록 하였고, 그 안쪽에는 다시 목재루버를 설치하여 폭풍우시의 빗물이 들이치거나 나뭇잎이 날리는 것을 막고, 식재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내측의 목재루버와 건물의 벽과 창이 있는 사이에는 전형적인 더블스킨 구조에서 볼 수 있는 통풍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목재를 사용한 더블스킨의 표피구조는 건물에 개성적인 인상을 부여할 뿐 아니라 자연에너지의 활용과 도시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는 목표를 종합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㉞

(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